주님 공현 대축일 2014 년 1 월 5 일 (가해)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4 권 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 2 독서 에페 3,2.3 ㄴ.5-6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 월 5 일	유 요한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 월 12 일	이 클라라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 월 19 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 월 26 일	전 니콜	이 요한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2 월 29 일	$350.00	_	$300.00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성체조배: 1/9 (목) 저녁 6 시 30 분
1 월 성체조배는 오는 1 월 9 일(목) 저녁 '6 시 저녁미사' 직후에 있습니다.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 시 30 분에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성령 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8 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하오니, 기도회 단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리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
견진성사를 준비하시고 싶은 분 또는 교리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교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해 주십시오.
교재: **'밭에묻힌보물'** (지은이: 차동엽 신부)
참가신청 및 문의: 유 요한 교육부장님

공 동 체 소 식

평협임원회의: 1/14 (화) 저녁 8 시
1 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가 둘째 화요일인, 1 월 14 일 (화) 저녁 8 시에 성당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소구역 공동체 모임: 1/19 (주일) 주일미사 후 친교실
1 월달 소구역 공동체 구역모임은 셋째 주일인, 1 월 19 일 주일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한인 공동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매주 있을 예정입니다..
기간: 2014 년도 1 월 첫째주일 부터 4 월 부활절까지
주제: 가톨릭 교회의 핵심교리. 교제: **'하느님을 향하여' (지은이: 최기산)**
내용: 매 주일미사후 친교실에서 15 분가량 교재를 구역별로 모여서 읽음 (셋째주일은 소구역 공동체 모임).
평가 및 포상: **부활절 퀴즈대회**후 신부님께서 포상.

영성영화감상: 1/26 (주일) 주일미사 후
영화제목: 타이타닉 (1996)

기도부탁드립니다.
병환 또는 여러가지 여려운 일들 중에 있는 분들과,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인공동체 봉사활동: 1 월 4 일(토) 오전 8-10 시
어제 오전 St. Vincent De Paul Store & Center (300 Baker St. Bakersfield) 에서, 새해를 맞아 불우한 이웃을 돕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넷째 왕이 몰려옵니다.'

홍성임 수녀| 룻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무작정길을 떠난 축일입니다. 외로운 목동 때문에 베들레헴이 흥분에 싸였는데,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떠들썩 해졌습니다. <넷째 왕의 전설> 에서는 길을 떠난 사람들이 삼왕만이 아니라는 깊은 인상을 줍니다. 오늘도 외로움 중에 '별'을 보고 구세주를 찾는 이들이 곳곳에서 길을 떠납니다.

저는 피정집에서 소임을 하다가 수유리에 있는 '베드로 무료 식당'에 파견되어 '길 떠난 많은 왕'들을 만났습니다. 인계를 하는 수녀님께서 식당 재정이 어려우니, 새해부터 밥값을 500원씩 받자고 했습니다. 깊게 생각해 준 수녀님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100명이 넘게 오던 분들이 4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내가 500원에 매달려 있다는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성주간에 다시 무료로 식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어, 150명이 오십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숙자만 오시면 좋으련만, 혼자 먹기 외롭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이 별을 따라 사랑이 있는 곳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품위 있게 식사를 하시도록 꽃도 꽂고, 식탁보도 깔았습니다.

"비가 오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점심을 주고 고맙다니,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시면서 "잔치야,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이러한 잔치로 우리를 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젊은 남자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하면 "내가 무슨 너의 어머니야? 수녀님이지." 하고 고쳐 주었습니다. 또 점심을 먹고는 "성모님! 감사합니다."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저를 "어머니!"하고 부르면 "아이고 반가워라. 점심 잘 챙겨 먹어서 고마워."하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밝은 미소를 띄웁니다. 저는 이분들이 <넷째 왕의 전설>에 나오는'넷째 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목이 부러진 천사인형을 가져오는가 하면, 또 머릿장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천사인형은 식당에, 머릿장은 제 사무실 앞에 놓고 꽃도 꽂고 화분도 놓았더니 "어머니, 꼭 은혜 갚을게요!"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원하셨던 당신의 '식탁 선교(table mission)'를 '베드로 무료 식당'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20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다른 곳으로 소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이곳에서 살 거라고 장담했었는데, 소임이 바뀌어 떠난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보름을 미루다가 결국 떠나는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립다는 말,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편한데 가게 되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분들은 마음 깊은 '넷째 왕국의 사람들' 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6지구 신부님들과 지구장 본당인 수유동성당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삼왕이 오신 이날은 잔칫날이고, 삼왕을 맞는 베들레헴은 잔치이고, 사랑을 나누는 베드로 식당도 잔치입니다. 가난할수록 잔치가 맛이 있습니다.
–서울주보에서-

Happy New Year!

새해 주님의 축복이 삶에 가득하시길 빕니다.